

공정위, 전분당 4사 '7년 담합' 적발... 7476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시장 점유율 90% 4개사
13차례 걸쳐 가격조작 행위 적발
전쟁 틈타 원가 상승분 소비자 전가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독점해 온 4대 제조사(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례적으로 '가격을 스스로 다시 내리라'는 강제 명령도 내렸다.

◆우크라 전쟁 틈타 가격 폭등...원가 부담은 소비자에게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이 7년 5개월에 걸쳐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를 협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 및 관련 임직원들은 이미 검찰 고발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 음료뿐만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의 필수 원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료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 혜택을 줬으나, 시장 점유율 90%인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조작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틈타 원

가 상승분을 신속히 전가하며 가격을 최대 73%나 끌어올렸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인하 요구를 몽개고 시기를 늦췄으며, 힘없는 소규모 업체나 대리점에는 비싼 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이들의 담합 방식은 치밀했다.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업체별로 시차를 두고 순차 통보해 거래처를 압박했다.

합의 후에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했다. 인상 통지 공문 발송일에는 경쟁사 직원이 서로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고, 우체국까지 동행해 발송 여부를 감시했다. 특정 거래처와 협상할 때는 거래 비중이 높은 전분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나머지 경쟁사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바람을 잡았다.

◆공정위 역사상 4번째 '가격 재결정 명령' 초강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내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더해 담합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라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역사상 네 번째로 부과된 초강수 조치다.

과점 체제가 굳어진 시장 특성상 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하지 않으면 담합 효과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

위 관계자는 "국민이 과부로 체감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사는 대형 실수요처 대상 '입찰 담합'과 사료용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로 또 한 번 공정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 등 7개 대형 실수요처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찜짜미한 의혹(관련 매출액 9400억원)을 포착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사는 사료 원료용 부산물 가격을 밀약한 혐의(관련 매출액 1조 5500억원)도 받는다. 이번 추가 담합 역시 중대 위반 행위로 분류돼 혐의 입증 시 최대 5000억원의 과징금이 추

가로 부과될 수 있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수원, 미래원전 기술·안전경영 선배

내일까지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모형 소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 원전 기술과 선진 안전경영 체계를 선보인다. 한수원은 6일~9일까지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전문 전시회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과 사람 중심의 안전'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마련한 한수원은 차세대 주력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통해 강화된 안전설계 기술과 다목적 활용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고위험 작업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되는 원격 조종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장 작업자의 안



한국수력원자력이 6일~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해 원전 안전기술을 선보인다. /한수원

전을 극대화하는 최신 기술을 생생한 영상과 시연으로 전달해 체감도를 높였다. 아울러 한수원 고유의 안전 경영 체계와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 운영 현황 등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안전 최우선' 가치도 함께 공유한다.

김상우 한수원 안전경영담당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수원이 추구하는 '신기술 기반의 안전한 작업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홍수 기자

산·학·연과 지속가능 '순환경제' 방안 모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의 실천방안 및 지향점 도출을 목적으로 각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다임 씨타워에서 '2026 드림파크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이 공유됐다. 공사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행사는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상반기 성과발표'와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전

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6개 참여대학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폐자원 에너지화를 비롯해,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침출수 처리공정 고도화,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소개됐다.

발표 후에는 평가위원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와 기술적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평가 결과, 창원대학교 석사과정 박재연 연구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수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자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처리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홍영기 속초시청 주무관은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 경험과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또 오세천 공주대 교수는 수도권 광역 거버넌스 기반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재정지원, 주민수용성 확보 등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같은 날, 포럼에 이어 '2026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도 열렸다. 폐기물관리·처리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플라스틱 재활용 등 분야의 연구성과 및 기술동향 등이 공유됐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포럼은 폐자원 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지 임대차거래' 현황 점검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농지 임대차거래'에 대한 현황 점검에 나섰다. 그는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농지은행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사업을 개편할 것"이라며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 주기 위한 농지 전수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자계약 체결 현장 및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 등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지거

래시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공급 확대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청년농업인과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 간 연결 필요 등의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귀농인이나 신규진입 청년농의 경우, 지역 내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농지은행포털'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임차인)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대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농지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보훈가족 대상 '문화복지'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맞손'

한국마사회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조성·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문화센터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좌 프로그램 기획과 시스템 및 감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어르신들이 한전하

고 쾌적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문화센터'는 마사회 사업소가 위치한 광주, 대구, 수원, 김해(부산) 등 4개 지역의 보훈요양원 거주 국가유공자 및 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래교실·꽃꽂이 등 연령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열린 협약식에는 마사회의 이병우 부회장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영의 사업이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